

# 이성적 사고 막는 '점술'과 '예언'

역술·풍수·점술서들에 독자 몰려...예언에만 주목하는 경향

지난 여름과 10월까지 이어진 추고기(秋窮期) 속에서도 반짝이는 책들이 있었다. 그 주인공은 존 그리샴 같은 외국의 인기작가도 국내의 30대 여류 베스트셀러 작가군도 아닌, '무당'들이었다. 김일성의 사망을 예언했다는 이유로, 무업(巫業)계의 대모여서, 빨치산 토벌대장의 아들이란 이유로, 그들의 책은 화제를 끌기에 충분했고 독자들의 호기심과 맞아떨어져 붐을 일으켰다.

불황 속에서 돌출된 이들 책에 대해, 서점가는 "끊임없이 새로운 얘기거리를 원하는 독자심리와 그동안 음식로 여겼던 곳에서의 삶에 대한 일반인들의 궁금증이 맞물려 잘 팔리는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여기에 좀 거창하지만, "세기말적인 현상과 더불어 전망이 불투명한 우리 사회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진단도 그리 틀린 지적은 아닌 듯하다.

## 일약 인기장르로 등장

이른바 역술 코너에 독자가 몰리고 책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세밑을 앞둔 철이면 《주역풀이》《만세력》《토정비결》은 특수를 맞아 불티나게 팔리는 일종의 계절적 시기물이다. 유통채널도 가관대 중심이어서 제야의 '길거리 베스트셀러'였던 셈(해방 후부터 한동안 만세력으로 때돈을 벌어들였던 출판사도 있었다 한다). 그러던 것이 대형서점 판매위주의 제도권 출판장르로 '영입'된 것은, 몇년 전 몰아쳤던 '풍수 열풍'에 의해서다. TV가 주동이 돼 일으켰던 풍수바람은 당장 출판 시장으로 번졌고 한때 비소설 부문을 주도하는 인기장르로 등장했고, 이후 꾸준히 자리를 굳혀 지금은 대형서점마다 '역술 코너'의 노른자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서점가에 가보면 이 코너의 책들을 유형별로 묶어낼 수 있다. 최근 세몰이를 하고 있는, 무당들의 뒷얘기를 다룬 '자전 에세이류'가 첫째. 다음은 출판역사로는 가장 오래면서 출판량으로도 최고인 《주역》을 텍스트로 삼은 다수의 책들. 이 분야의 마르지 않는 샘인 《주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분야는 '풍수'와 관상을 위주로 하는 '점술서'. 이밖에 작명용 한자사전과 해몽사전 등이 서가를 메우고 있다.

김일성의 사망을 예언했다는

이유로, 무업(巫業)계 대모여서,

빨치산 토벌대장의 아들이란

이유로 독자들의 호기심을

끌어들여 불황 속에 호황을

맞는 책들이 있다.

학문적인 연구 끝에 퍼낸

책들과 달리 그 책들에 명기된

몇가지 예언에만 주목하는

오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여느 장르와 다름없이 역술도서 역시 쉽게 풀어쓰기식 출판방식이 유행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새 시대를 위한' '미래를 쉽게 여는' '쉽게 쓴' '소프트' 등의 수식이나 시리즈명이 붙은 책들이 많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한국의 명당》《현장 풍수》를 비롯해 풍수와 역학책을 다수 출판하면서 전문출판사로서의 이미지가 풍기는 도서출판 동학사의 문혜순씨는, "풍수나 역학이 무작정 미신이나 비과학적이라는 일반인, 특히 젊은층의 고정관념을 깨고 풍수나 사주의 원리를 생활에서 찾아내 응용할 수 있도록 기획한다"고 밝힌다.

## 생활풍수서들 인기

《만화로 보는 주역》(최영진 외/변영우 그림, 동아출판사)까지 선보인 역술서의 '쉽게 바람'은 형식의 편의성에서 더 나아가 독자의 궁금증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다. '용한 점쟁이'들은 누구며, 어떻게 연락할까 하는 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책들이 바로 그런 책들. '신세대 역술가' '풍수 이론가' '심령철학자' '여류 무속인'을 한데 모은 《한국의 점술가들》(구본희, 스포츠조선)을 비롯해 《전국에 소문난 점집 42》(김은영 외, 청년사) 《소문난 역술명인 베스트》(김성률, 집사재) 등의 책들은 각 점술가의 개인적 특징과 복채 주소록을 실고 있어 그 기획의도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위의 책들이 점을 보고자 하는 성인층 독



'풍수' '역술' '점술' 등 이른바 '예언'만을 주목한 책들이 독자들의 사고를 혼란에 빠뜨린다는 지적이다.

자들의 구미를 끈다면, 수상·관상 등을 쉽게 설명하고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꾸민 책들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재미있는 손금여행》《변하는 손금, 바뀌는 운명》《관상을 알면 팔자가 보인다》 등의 제목을 단 책들은, 편집방식을 대강 훑어봐도 청소년이나 20대 독자층을 겨냥한 책임을 금방 알 수 있다.

무업 종사자들의 수기와는 다르게 최근 새로운 소장르로 떠오르고 있는 책이 '생활풍수서'다. 생활풍수란, 가옥의 위치나 방의 형태, 책상의 위치에 따라 사람의 운세가 바뀐다는 주장. 옛 어른들이 "잘 적에 북쪽에 머리 두지마라"했던 그런 것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생활풍수가 성하다고 하는데, 이 분야의 대가라 불리는 북경 태생 林雲의 제자인 사라 로스바크의 《풍수로 보는 인테리어》와, 같은 저자의 《서양인인 본 생활풍수》(최창조 편역)가 있고, 국내 저자의 책으로는 한국지리학회 회장인 지창룡씨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생활풍수》, 그리고 건국대 최무용교수의 《길운이 톡톡 튀는 비즈니스 파워 풍수》라는 이색적 제목의 저서도 있다.

최근 역술관련 코너에 독자나 일반인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고, 무업종사자들의 자전 에세이가 베스트셀러군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미신'이라고만 치부해왔던 이 분야에 대한 시각교정이 이들 책으로 인해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자칫 그

책들에 명기된 몇가지 예언에만 주목해 예언서로 여기는 일반독자들의 오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 어떤 책의 경우, 예언적 경향이 짙어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비판적 안목 키워야

이에 대해 전주 우석대 김두규 교수(《한국풍수의 허와 실》의 저자)는 "신기를 받은 무당의 예언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불길한 얘기가 증대한 나랏일에 대한 발설을 금기시했던 우리의 전통을 감안한다면, 최근 일고 있는 예언에 대한 시비는 출판계의 상업성이 빚어낸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알 만한 사람들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우리 교육이 그런 것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갖게 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한다.

그같은 우려는 시기적으로 세계의 예언서가 화제가 된 뒤, 무당들의 책이 베스트셀러에 진입했다는 점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학문적 근거로 논리성을 지닌 역술서와 달리 무업 종사자들의 예언을 두고 믿으라거나, 믿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독서를 통해, 주변부적 삶을 살아온 그들의 생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과, 그들의 예언에만 주목해 '맞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가벼운 호기심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최태원>